

‘코로나’, 광주·전남 일상을 삼켰다



코로나 19 여파로 평소 대학생 등 젊은층들로 북적였던 전남대 후문 일대는 발길이 뜸 끊기다시피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신천지 교인과 접촉했던 사람·들렀던 곳 기피 현상 심각
상점·극장가·대형마트 한산...광주 노인복지시설 등 잠정 폐쇄
“누가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몰라 함부로 밖에 다닐 수 없어”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일상을 뒤흔들고 있다. 갈수록 확진자가 늘면서 지역민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시설에는 방문객의 발길이 뜸 끊겼다. 확진자와 관련 있는 학교·유치원·학원, 상점 등이 잇따라 문을 닫는가 하면, 누가 접촉자일 지 몰라 예정된 모임, 행사, 가족 나들이·여행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태로 줄을 잇고 있다. 인파가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관련 단어는 연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서 내려올 줄 모른다. 가정에서는 물론 삼삼오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으레 코로나가 화제로 오른다. 전국적으로 하루 동안 확진자만 200명 넘게 나오면서 ‘대유행’ 우려마저 나오는 등 ‘코로나’가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23일 오후 찾은 광주시 북구 전남대 후문 인근 상점가는 텅 비어 있었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를 다녀온 광주지역 교인 4명과 배우자 2명, 성정을 같이 공부하는 지인 1명이 ‘코로나 19’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인데다, 신천지 광주분부와 불과 500여 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탓인지 인적이 없어 썰렁했다. 평소에는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뒤섞여 길을 걷기도 힘들었던 거리라곤 여겨지지 않았다.

대구지역 신천지 예배를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지역 신천지 교인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광주시 동구 계림동 홈플러스 앞에는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제 55회 공인회계사’ 시험이 실시된 북구 동강대에는 수험생들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험을 치렀고, 감독관도 흰색 방역복을 입고 시험실을 지켰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인파가 물리는 상

점, 극장가, 대형마트 등도 한산했다. 박초희(39·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씨는 “지난 주 장을 봤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누가 확진자랑 접촉했을 지 모르는데 함부로 밖에 다닐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듯하다며 다시 운영에 들어갔던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노인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노인일자리 등도 이틀만인 21일부터 잠정 중단됐다.

방에만 갇혀 있다가 모처럼 밖으로 나왔던 노인들은 다시 갈 곳도, 지낼 곳도 없는 신세가 됐다. 현재로서는 상황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얼마나 더 확산할 지 몰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당장, 어린이집 1122곳이 다음달 1일까지 문을 닫았고 초·중·고교 입학도 일주일 가량 미뤄졌다. 주말 전주교 미사나 교회 예배도 다음달 5일까지 열리지 않는다. ‘코로나 19’ 확산을 우려, 예정된 지자체 및 문화계 행사도 줄줄이 미뤄지거나 취소되고 있으며 가족 간 모임, 행사, 여행·나들이 일정도 취소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웬만큼 아프거나 평소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는 환자들은 병원 방문마저도 삼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 디오션리조트 측은 지난 21일 이후 하루 평균 5~6건 예약 취소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상엽(30·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아버지 환갑을 맞아 친지들과 리조트를 예약했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취소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3일 광주 북구 천주교광주대학교 임동주교좌성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미사가 중단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광주대학교 미사가 전면 중단된 것은 1937년 교구 창설 이래 83년 만에 처음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공항 택시승강장 일대에 대한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코로나19 확산으로 23일 동강대에서 치러진 공인 회계사 시험에서 감독관이 방역복을 입고 시험 감독에 들어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보건당국, 소극 방역활동 확산 조기 차단 못해

126번·164번 확진자 “대구 다녀왔다” 검사 요청 불구 발열 없으며 돌려보내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행위 요청에도, 광주지역 보건당국이 소극적 방역 활동으로 접촉자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남구·동구보건소는 ‘코로나19’ 126번과 164번 확진자가 “대구를 다녀왔다”며 검사를 요청했지만 발열 등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26번 환자인 A(30·광주시 서구 풍암동)씨의 경우 지난 19일 오후 2시께 광주

시 남구보건소를 찾아 “대구에서 왔다”며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했지만 보건소측은 “발열 등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며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면 선별진료소를 찾으라”고 돌려보냈다. A씨는 다음날 20일 오전, 다시 두통 등의 증상으로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남구보건소에서 돌아간 뒤 하루 접촉자만 29명이 넘고 거처간 식당·피사방 등을 폐쇄, 영업을 못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보건소의 적극적 검사가 아쉬운 부분이다.

A씨가 보건소를 찾을 때만 해도 대구 신천지 예배를 다녀온 사람들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은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지시한 점을 감안하면, “대구 신천지 교회 다녀온 적이 있어요”라는 적극적인 문진을 했더라면 접촉자 확산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164번째 확진자 B(31)씨도 지난 19일 “대구를 다녀왔다”며 동구보건소를 찾았지만 증상이 없다며 귀가 조치했다. B씨가

“신천지 교회와 관련 있는냐”는 보건소 질문을 부인한 것도 접촉자 확산을 늘리는 데 한몫을 했다. B씨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여러 교인들과 성경 공부를 했다. 앞서 광주 광산구보건소는 광주지역 최초 확진자인 C(여·44)씨와 그를 치료했던 광주 21세기 병원 측의 검사 요청을 무시해 비난을 샀다. 같은 환자가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을 두 번 찾았는데 어떤 의사는 보건소 매뉴얼에 따라 돌려보내고, 다른 의사는 코로나 검사를 요구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다른 결과와 빛이진 점에 비해, 어떤 경우라도 보건소와 의료진은 매뉴얼 이상의 적극적인 진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한영 기자 young@

서점서 쓰러지며 코로나 환자 행세 20대 병원에서 도주극 소동
○·광주한 대형 서점에서 쓰러지는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20대 한때 병원을 탈출해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
○·23일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A(24)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내 영풍문고에서 대구 신천지 예배를 다녀왔으며 갑자기 쓰러져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별진료소를 빠져 나와 휴대전화 전 원까지 그리고 1시간여 가까이 사라졌다는 것.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된 A씨는 ‘최근 대구도 방문하고 신천지 신도’라 주장하는 바람에 접촉한 구급대원은 격리되고 서점은 임시 폐쇄되기도 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21일 집에서 가출해 부모가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며 “A씨의 부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은 대구에 가지 않았고 신천지 신도도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